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

김정우*

1. 들어가는 말

신구약 성경의 우리말 완역은 초창기 교회의 가장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였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신문 중 하나인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한 독자는 자신이 “마치 배고픈 사람과 같다”며 “한문성경을 한글로 빨리 번역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었다(1898.5.4).¹⁾ 같은 신문은 이듬해(1899.10.25)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뜻을 모아 성경 번역 위원 다섯 명을 위촉하였으며, 장차 성경을 번역할 때 “본 말뜻도 구비하고 대한 말도 순순하여 알아보고 공부하기에 편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²⁾ 1900년에 드디어 『신약전서』 완역본이 나왔을 때, “대한교우들에게 또한 크게 기쁜 일이더라”고 전한다.³⁾ 「신학월보」에서는 1904년에도 “구약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문으로 번역하지 못하여 한문과 영문을 아는 형제 외에는 공부할 수가 없다”는 안타까움을 피력하였다.⁴⁾ 이와 같은 성도들의 갈망과 기도를 힘입어 초기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은 성경 번역에 전념하였으며, 1906년 「창세기」와 「시편」이 낱권으로 먼저 번역되고,⁵⁾ 1910년에 구약성경을 완역하여 1911년에 『구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구약학.

- 1) “한문성경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일은 어찌나 되었는지 답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양식은 성경인데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남녀간에 국문으로 번역한 성경 내려 보내시기를 배고픈 자의 밥과 목마른 자의 물과 같이 기다리오니 원컨대 ...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영혼의 양식을 어서 속히 내려 보내 주시어 여러 동생들의 배를 부르게 하여 주옵시기를 천만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7 (1898. 5. 4).
- 2) 「조선그리스도인회보」 43 (1899. 10. 25). 첫 5명은 장로교의 언더우드, 게일, 리목사와 미이미회의 시란돈씨, 아펜젤러로 소개된다. “이 다섯 사람은 비단 본국 글을 잘 알 뿐 아니라 대한 방언도 잘 아는 고로 이 사무를 맡았다”고 한다.
- 3) 「조선그리스도인회보」 4:19 (1900. 5. 9). 이 당시 성경번역의 특별위원 회장은 언더우드, 서기는 아펜젤러로 소개되며, “마태복음은 팔 년 전부터 출판하였거니와 목시록까지 다 되기는 금년에 마쳤다”고 한다.
- 4) 「신학월보」 4:9 (1904. 9).

약전서』 완역본이 출간되면서 첫 『성경전서』를 내어 놓게 되었다. 이 말씀이 있었기에 한국 교회는 용광로와 같은 수난의 일제 시대를 36년간 통과하면서도 성경적인 믿음과 민족의 언어와 정신을 함께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우리는 우리말 성경전서 완역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마련해 준 우리의 선진들에게 감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유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학문적 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대한성서공회가 우리나라 성서학자들을 중심으로 원문에서 우리말로 직접 번역하는 작업을 지난 40여 년 동안 꾸준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⁶⁾ 교회는 번번이 새 번역들을 수용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짧게는 50여 년(개역[1938, 1952년], 개역개정([1998년])), 길게는 100년 된 성경(성경전서 [1911년] 추후 ‘구역’으로 표기함)의 언어 유산에 매여 새 시대의 언어로 탈바꿈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 서서 우리말 첫 성경이 하나의 번역 작품으로서 원문의 뜻과 한글의 용법을 각각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번역에 반영하였는가를 검토하며 이 확고한 토대 위에서 새 시대에 어울리는 성경 번역을 위한 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2. 우리말 『구약전서』의 저본(底本) 문제

우리말 첫 구약전서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원전을 사용한 여부와 그들의 원문 이해 능력에 대하여 현재 학계에는 두 가지 큰 축이 대립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먼저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영진은 『구역』과 그 이후의 『개역』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된 것이 아니라, 한문 번역들과 영어 번역들을 대본으로 하여 번역한 것으로 보며, 최근에는 창세기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⁷⁾

-
- 5) 우리말 창세기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번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영진이 관찰한 바대로 “구약촬요의 창세기 발췌 번역”(1899)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민영진, “「창세기」(1906/1911년)-서지 사항, 편집 특징, 번역 특징, 주석 선택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7 (2010), 11. 시편의 번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즉, 시편 완역에는 그 이전에 나온 『시편촬요』의 도움이 컸을 것이다.
- 6) 『신약전서 새번역』(1967)을 필두로 『공동번역』(1977), 『표준새번역』(1993) 등 역작들이 나왔다.
- 7) 29-30. 그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무엘상 25:21-22 『구역』은 MT 반영이 아니다”고 말한다. 30쪽, 각주 28. 이와 같은 입장은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에서 더욱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1882년부터 1911년까지를 달리 ‘성서 중역(重譯)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역이라 함은 성서를 원문에서 직접 번역하지 아니하고, 다른 번역에서 거듭 번역하는 것을

창세기 번역자들에게 본문비평에 대한 관심은 처음부터 없었다. 한 세기 전에 본문비평은 아직 생소했다. 히브리어 구약 성서 비평적 편집이 나온 것이 1937년이였다. 그러나 『구약』의 구약을 보면 심각한 MT 이탈이 군데군데 보인다. 이것은 『구약』 구약의 대본의 본문 전송에 관한 연구가 따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민영진과 대조적으로 김중은은 “『구약』의 저본은 무엇인가?”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 후, “1910년까지 공인번역위원회의 구약역 저본에 대해서는 간단히 대답할 수 없지만”,⁸⁾ 피터스의 『시편촬요』와 이후 피터스 자신이 개정하게 된 『개역』의 시편번역은 원문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⁹⁾ 이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는 먼저 『시편촬요』(이후 ‘촬요’로 표기함)를 번역한 피터스 자신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¹⁰⁾

나는 어려서부터 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매일 히브리어 기도서를 읽고 시편의 아름다움과 영감을 맛보면서 암송할 수 있었다. 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최소한 시편 중에 얼마라도 번역해 주고 싶었다. 저주 시편을 빼고 시편의 절반 정도의 분량을 번역하는 데 약 1년이 걸렸다. ... 1898년에 출간된 시편촬요는 8년 동안 유일한 한국어 구약역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게 되었다.

김중은은 또한 『구약』의 「시편」을 번역한 언더우드도 자신의 번역이 “중국어 성경을 바탕으로 한 불충분한 번역”이라는 세간의 평론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¹¹⁾

일컫는다. ... 우리말 구약전서는 여러 면에서 1901년 미국에서 나온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을 기초 본문으로 삼고, 그 밖에 주로 한문 성서를 참고한 중역의 흔적이 짙다”.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5), 43.

- 8) 김중은, “구약성서국역사”, 『구약의 말씀과 현실: 심천(深川) 김중은 구약학공부문집』 (1996), 11. 그가 볼 때 『구약』에는 “특정 저본이 따로 있었던 것 같지 않다. 각 번역위원들의 역량과 재량에 따라 각자가 맡은 분량의 초역을 준비하였고, 공인번역위원회가 모여 정식으로 번역본문을 확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The American Standard Version을 기본으로 삼았던 것 같다”고 한다.
- 9) 김중은, “구약(舊約) 국역사(國譯史)에서 Alex.A.Pieters의 위치와 의의”, 『구약논단』 27 (2008), 159-182.
- 10) Ibid., 162. 이 글은 Alex. A. Pieters, “First Translations”, *The Korea Mission Field* 34:5 (1938), 91-93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김중은의 사역(私譯)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 11) 이 글은 언더우드가 번역 위원회의 이름으로 쓴 글이므로, 그를 3인칭으로 소개하고 있다. Ibid., 165. 김중은은 이 글을 김인수,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편지, 1885-1916』 (서울: 장로회 신학교출판부, 2002), 473에서 인용하였다.

우리는 피터스 씨가 시편 번역을 출판한 것에 대해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 그러나 피터스 씨가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언더우드 박사는 시편에 대한 대부분의 번역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중국어 번역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비평작업의 도움을 받으며 원문으로부터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 현재 번역위원회 앞에 있는 이 시편 개정본은 언더우드 박사의 작업을 바탕으로, 물론 피터스 씨의 번역(시편촬요)이 줄 수 있는 제안들과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것입니다(필자의 강조).

이 편지에서 언더우드와 초기 번역진은 피터스의 『촬요』를 수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번역을 만들어 내었다고 말하지만, 역사는 오묘하게도 피터스의 손을 들어주어 그가 『구역』을 개정하는 ‘평생위원’(permanent member)으로 위촉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휴는 미국성서공회에 피터스를 추천하는 편지에서 “히브리어 학자로서 그는 한국에서 그 어느 사람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그의 한국어 지식도 매우 탁월합니다”는 평가를 보내었다고 한다(필자의 강조).¹²⁾ 김중은은 피터스가 1927년부터 1938년까지 『구역』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오전과 오후에 번역 일을 하며 원전(the original text)을 앞에 놓고 세심하게 대조하여 개역을 하고 있다고 선교부에 보고하였다”고 한다.¹³⁾ 끝으로 그는 피터스가 『구역』을 개정하던 난관들을 설명한 마지막 기록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¹⁴⁾

1) 히브리어 성경구절 중에 불명료한 개소들에 관해 뜻이 통하는 번역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명료 개소들의 뜻을 해석하기 위하여 적어도 12종류의 성경 번역을 참조했다.¹⁵⁾ … 그 외에 정통과 자유주의를 망라한 주석들과 두 종류의 히브리어 사전을 사용했다.

12) 민휴(閔休, H. Miller), “조선어성경의 유래”, 류형기편 (1949[5판]), 『단권성서주석』, 53-58. 김중은, “구약(舊約) 국역사(國譯史)에서 Alex.A.Pieters의 위치와 의의”, 171에서 인용됨.

13) 김중은, “구약(舊約) 국역사(國譯史)에서 Alex.A.Pieters의 위치와 의의”, 172. 김중은에 따르면 1922년 11월부터 “C. D. Ginsburg의 히브리어 구약원전은 『개역』의 공식적 저본으로 사용되었다”고 결론 내린다. 김중은, “구약성서국역사”, 11. 그러나 문헌적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14) Ibid., 173. 이 글은 A. A.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The Korea Mission Field* 36:5 (1940), 78-80에서 인용된 것이다.

15) 이 열두 개의 번역본은 “루터역, 개역루터역, 러시아 정교회역, 러시아 개역, 영어 흠정역, 영어 개역, 영어 마펫역, 영어 굿 스피드역, 영어 긴스버거역, 두 종류의 한문성경, 일역성서”로 제시된다. 김중은, “구약(舊約) 국역사(國譯史)에서 Alex.A.Pieters의 위치와 의의”, 173.

민영진과 김중은 이후 여러 학자들은 우리말 초기 성경번역자들의 원문성경 친숙도에 대한 평가에서 위에 제시된 두 축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조율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환진은 『성경전서』(1911)의 번역 대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편, 잠언, 욥기의 본문들을 선별적으로 다루면서 “『구역』의 번역 대본은 한문성경 브리지만-컬벳슨역(1864)과 RV(1881)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 용어와 표현을 웨레쉐브스키 관화역본(1875)과 웨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에서 빌려오기도 했다”고 결론내림으로써 『구역』과 히브리어 원문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배제하고 있다.¹⁶⁾ 그렇지만, 상당수의 학자들은 여전히 『구역』이나 『개역』이 원문에서 번역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¹⁷⁾

따라서 우리는 이 글에서 시편을 중심으로 『시편촬요』와 『구역』 및 『개역』의 「시편」 번역들이 과연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역된 것인지, 그렇다면 원문의 뜻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하였는지 검토하며, 나아가 우리말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표현해 내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피터스의 『촬요』와 언더우드의 『구역』 「시편」 그리고 『개역』 「시편」 사이에 어떤 역

16) 이환진, “『성경전서』의 번역 대본 고찰-시편(85:10-13)과 잠언(1:1-7)과 욥기(1:20-2:6)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7 (2010), 31-55.

17) 이 입장은 교회사가들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주장된다. 옥성득에 따르면, “로스부터 한글 성경번역자들은 중국어(한문문리본) 성경과 영어(개역본) 성경 외에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성경을 참고하되, 최신 사본 연구 결과가 반영된 그리스어 신약(Palmer's edition)과 히브리어 성경을 저본으로 채택했다”고 한다(필자의 강조). 옥성득, “구역본 성경전서(1911)의 번역, 출판, 반포, 출판의 역사적 의미”, 『한글 성경이 한국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 한글 성경 완역 및 출간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150. 『대한성서공회사 II』에 따르면, 『구역』의 개역위원회에서는 1922년 9월 1일에 영국성서공회에 편지를 보내어 “옥스퍼드 히브리어 사전(Oxford Hebrew Lexicon) 한 부와 함께 긴즈버거(Ginsburg)의 히브리어 구약성경 3부도 보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것 또한 개역자회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고 한다(146). 또한 “1897년에 나온 Introduction to the Masoretico Critical Edition of Hebrew Bible”을 소개한다(각주 93). 이만열에 따르면 한문성경 화합본(1919)이 “원문에 충실하고 문체가 부드럽으며 전국교회가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번역성경으로 기획되었다”고 한다. 이만열, “한글 성경 완역 출판과 한국 사회”, 『한글 성경 완역 및 출간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17-18. 박용규는 초기 성경 번역이 원문에서 이루어졌으며 “초기 번역자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마가렛 힐스가 지적한 대로, ‘그것(시편촬요)은 1911년 구약에 사용된 시편번역에 공헌했다.’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성경의 시편 번역은 피득의 번역문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약간의 문장 수정만 했을 정도로 시편촬요는 한글 구약성경 시편 번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 파송된 다른 선교사도 시편 번역에 착수했지만 피득의 번역에는 따라갈 수 없었다”고 한다(필자의 강조입). 박용규, “알렉산더 피터스(1871-1958): 성경번역자, 찬송가 작사자, 복음전도자, 1895-1911”, 『평양대부흥 100주년기념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 조명』 (서울: 내국교회와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21-79. 김중은, 162-163에서 인용됨.

동적인 수용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성경 번역의 성격과 질에 대한 분석의 범주

우리말 성경 번역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학자들은 다양한 범주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사가들은 대부분 ‘역사적인 관점’에서 번역자들과 번역의 과정, 역사 그리고 그 의의를 다룬다.¹⁸⁾ 그렇지만 성서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번역의 원칙과 특징,¹⁹⁾ 저본 및 대본,²⁰⁾ 번역 어휘의 변화와 수용,²¹⁾ 서지적 관점에서 편집의 면모 등을 다루며, 나아가 ‘국어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한다.²²⁾ 이 사항들을 대략 도표화 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연구자 | 역사적 관점 | 문헌적 관점 | 국어적 관점 |
|-----|------------------------------------|--|--------------|
| 민영진 | 번역 역사 번역자 번역에 관한 문헌 번역 저본 | 편집(서지사항 포함) ²³⁾ 문체 ²⁴⁾ 번역 평가 | 띄어쓰기, 아래 〰 등 |
| 김중은 | 번역 역사 번역자 번역에 관한 문헌 번역 저본 | | |
| 김창락 | | 문체 ²⁵⁾ 문법 ²⁶⁾ | |

18) 대표적으로 이만열, 옥성득, 이덕주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 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 『Canon&Culture』 7 (2010), 75-126. 소기천은 성서학자이지만, 문화적 배경을 다루고 있다. 소기천, “1911년 『성경전서』의 한국 문화사적 가치에 관한 연구”, 『Canon&Culture』 7 (2010), 127-158.

19) 김창락, “『성경전서』(1911)의 번역 검토”, 『Canon&Culture』 7 (2010), 39-74; 민영진, “『창세기』(1906/1911년)”, 『Canon&Culture』 7 (2010), 5-38;王大일, “『성경전서』(1911년)에 반영된 번역의 특징들”, 『Canon&Culture』 8 (2010), 5-36.

20) 김중은, “구약(舊約) 국역사(國譯史)에서 Alex. A. Pieters의 위치와 의의”; 이환진, “『성경전서』의 번역 대본 고찰” (2010), 31-55.

21) 廣剛 (히로 다카시),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서울: 高麗大學校 大學院, 2005).

22) 이달, “『성경전서』(1911)의 요한계시록 번역 특징에 대한 고찰”, 『Canon&Culture』 8 (2010), 71-98.

23) 민영진은 여기에 “책이름, 장표시, 절표시, 새 문단에 각설표, 사람 이름(외줄), 장소 이름

| | | | |
|-----|-----------------------|---------------------------|--|
| 왕대일 | | 문체(입말, 글말) ²⁷⁾ | |
| 소기천 | 문화적 배경 | 문체(국한문혼용) | |
| 이달 | | 문체(첨가와 삭제) 번역 평가 | 우리말 표기문제 ²⁸⁾ 어휘 사용 문제 ²⁹⁾ |
| 이환진 | 번역자 번역 저본(대본) | | |
| 이덕주 | 번역 역사 번역 과정 번역자 | | |

위의 도표를 볼 때, 민영진의 분석 모델이 가장 종합적이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사적 관점과 국어적 관점을 배제한다면, 대부분 원문과 번역문의 문체와 문법을 중심으로 번역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문체와 문법의 관점과 그리고 대본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말 옛 시편 번역본들의 성격과 질을 검토하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논문의 제한성 때문에, 우리는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쉬운 23편과 중요하지만 어려운 시인 110편을 선택하였다.³⁰⁾

(겹줄, 음역(물결줄), 시와 산문의 문체적 구별(시는 머리 위로 글자 두 개 정도 칸을 비움) 등을 제시한다.

- 24) 민영진은 이 항목을 번역 특징으로 제시하며, “(1) 대명사를 실명사로(존대법), (2) 히브리어 본문의 생략(첨가보다 생략이 더 많음), (3) 우리말 첨가, (4) 원문 변경, (5) 와전된 본문의 자의적 조정, (6) 헤브라이즘 처리(부정사를 강조법으로 제시함)” 등을 꼽는다.
- 25) 김창락은 구역이 “우리말다운 문체를 만듦으로써 외국어투의 문체를 피했다”고 보며, 그 문체적 특징으로서 ‘관소리체’를 제시한다.
- 26) 그는 주로 문법적 관점에서 구역의 장단점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는 장점으로 (1) 동사의 연결형을 줄지어 사용함, (2) 수동태를 가능한 한 능동태로 만들, (3) 전치사구를 우리말 어법에 어울리게 함을 꼽고, 단점으로서 (1) 현재 분사와 단순 과거 분사 차이 구별 못함, (2) 대등접속사 가르 문제, (3) ‘다만, 오직’ 같은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며,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를 구별 못하고, 주격 조사를 부정확하게 사용하였다고 비판한다.
- 27) 왕대일은 구역의 번역은 “원문 내용을 풀어서 순수 우리말 번역으로 살렸다”고 본다.
- 28) 이달은 엄격한 의미에서 국어와 국문법 차원에서 먼저 ‘표기문제’로서 (1) 연결-분절양상, (2) 자음과 모음의 음소표기, (3) 음운현상으로서 두음법칙, 구개음화, 모음조화의 표기, (4) 문법형태소로서 조사, 사이시옷 표기를 다룬다.
- 29) 그는 1911년의 국어와 오늘날 현대 국어 사이에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어휘들을 열거하며 설명한다.
- 30) 또한 우리는 『활요』 62편 중에서 첫 35편을 중심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하며, 각주에 반영하였다.

4. 시험 본문: 시편 23편과 110편의 대본 및 번역의 질에 대한 평가

구약학자들에 따르면 19세기 말과 20세기의 구약의 번역 성경들은 야곱 벤 하임이 편집한 『제 2 랍비 성경』이나³¹⁾ 이 책의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수용하고 본문비평을 시도한 『긴스버거 구약』을 저본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³²⁾ 시편 23편과 110편의 경우 『제 2 랍비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비평본(BHS)의 원문과 동일하므로, 『시편촬요』³³⁾와 『구역』과 『개역』의 「시편」번역이 원문과 우리말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그 당시 우리말 번역들은 한문 성경을 대본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우리는 이 글에서 『대표본』(일명 문리관주 1804),³⁴⁾ 『브리지만-켈벗슨』(1864 이후 브리지만으로 요약하여 표기함),³⁵⁾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이후 쉐레쉐브스키로 표기함)(1902),³⁶⁾ 그리고 『화합본』(1919)³⁷⁾의 번역과도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³⁸⁾

31) Jacob Ben Hayim Ibn Adoniya; *Biblia Rabbinica: A reprint of the 1525 Venice Edition*, ed., Introduction by Moshe Goshen-Gottstein (Jerusalem: Makor Pub., 1972).

32) 민영진,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에 따르면 『긴스버거 구약』은 초판(1894년) 후에 부분적으로 교정되며(1908, 1926), “이것이 우리말 『구역』과 『개역』의 구약 히브리어 대본이 된다”고 한다(p. 14). Jacob ben Hayyim ben Isaac ibn Adonijah, *Introduction to the Rabbinic Bible*. Hebrew and English with explanatory notes by Christian D. Ginsburg, Prolegomenon by Norman H. Snaith (New York: Ktav, 1968). 이후 루돌프 키틀은 긴스버거가 편집한 제 2 랍비 성경에 근거하여 『히브리어 성서』(*Biblia Hebraica*)를 편집한다(1909). Rudolph Kittel, *Biblia Hebraica* (Lipzig: J. C. Hinrichs, 1909). 키틀은 이후 레닌그라드 코덱스를 저본으로 삼아 O. Eissfeldt, Paul Kahle, Albrecht Alt, W. Baumgartner와 함께 제 3판에서 완성된 비평본을 만든다. *Biblia Hebraica* (Stuttgartiae: Bibelanstalt, 1937).

33) 피터스는 150편 중에서 모두 62편의 시들을 번역하였다(1-10, 15, 16, 18, 19, 20, 22-25, 27, 30, 32, 37, 46, 50, 51, 62, 63, 65, 67, 84, 86, 90, 91, 95, 96, 97, 98, 100, 103, 105, 107, 110, 112-116, 119, 121, 124, 126-128, 130, 133, 138, 142, 145, 146, 148, 150). 여기에 있는 62수는 시편에서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들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34) 『新舊約聖書: 文理串珠』(상해: 中華民國聖經公會, 1920[1804]).

35) 『舊新約全書』(神戶: 大英國北英國聖書公會, 1906[1864]).

36)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1912[1902]). 필자는 이환진 교수의 도움으로 이 책이 김경수 편, 『1912년에 발간된 한문성경』(서울: 이화문화출판사, 2010)으로 출판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글을 씀에 있어서 옛 우리말 성경과 한문성경들의 서지 사항들을 제공해 준 대한성서공회 문헌정보자료실 이은숙 과장에게 감사드린다.

37) 『화합본』은 일명 the Union Version으로서 1919년에 처음 출판되었다. 이환진에 따르면, 「북경관화 화합본」(상하이, 영국성서공회)은 1919년에 구약이 완성되지만, 「시편」은 「창세기」와 함께 1907년에 이미 출판되었다.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 중국어 성서,」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 주석과 성서 번역』 왕대일 엮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413-499. 필자는 초기 『화합본』을 볼 수 없었으므로, 1961년판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38) 필자는 번역들의 차이점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보며 효과적으로 비교·대조·검토하기 위하

4.1. 시편 23편에 대한 번역 평가

23:1

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스니
내게 부족함이 업스리로다
구역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업스리로다
개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업스리로다
개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 1절은 ‘나의 목자가 되셨다’(찰요)가 ‘목자시니’로 변한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찰요』의 번역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구역』의 ‘목자시니’는 영어성경(KJV, RV, ASV의 is)을 따른 번역이다.

제 2행의 ‘부족함이 업스리로다’(찰요, 구역)는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형태(*lōʾ ʾeḥsār*)로서,³⁹⁾ 미래로 번역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⁴⁰⁾

23:2

찰요 여호와가 날노 향여곰 방초 동산에 눕게 하시고
쉬울만한 물 가호로 나를 잇쓰시며
구역 나로 향여곰 푸른 풀밭헤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 가호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개역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 가호로 인도하시는도다
개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 가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 원래의 번역본들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평행법을 따라 문장을 새롭게 배열하여 보았다. 또한 『개역한글』(1952, 1956)은 『개역』(1938)을 새로운 한글 맞춤법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서 현대 독자를 위하여 첨가하였다.

39) 히브리어 음역은 Bible Works 7.0에서 악센트 기호를 빼고 그대로 가져왔다.

40) 영어 성경들은 모두 ‘없을 것이다’(‘I shall not want’[KJV, ASV 등])로 번역하고 있다. 한문 성경은 匱乏(대표본=브리지만, ‘다하여 없어짐’), 窮乏(쉐레체브스키), 缺乏(화합본)으로 번역한 것을 볼 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는 쉽고도 좋은 우리말 번역이다. 『표준』과 『공동』은 현재형으로 이해하며 ‘내게 아쉬움 없어라’로 번역한다. 이 풍부와 결핍의 동사에 있어서 완료형과 미완료형의 번역에 대하여, Paul Joueon &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o, 2006), §125, d를 보라(사 1:15; 출 16:12; 창 18:28 참조). 현재의 맥락에서 미래가 적절하다.

제 2절에서 주어진 ‘그’이지만, 『촬요』는 의미상의 주어에 따라 ‘여호와’를 첨가한다. 제 1행의 명사구(bin’ôṭ deše’)는 ‘방초 동산’(촬요), ‘푸른 풀밭’(구역), ‘푸른 초장’(개역)으로 번역된다. 제 2행의 명사구(mê mənūḥôṭ)는 ‘쉬울만한 물 가’(촬요; 개역)와 ‘잔잔한 물 가’(구역)로 번역된다. 『촬요』의 ‘방초 동산’은 『대표본』의 ‘芳草之苑’에서, ‘쉬울만한 물 가’는 브리지만의 ‘憩息(계식)之水濱’과 유사하다(安歇的水邊 웨레쉐브스키 [=화합본]). 『구역』의 ‘푸른 풀밭’은 우리말을 가장 잘 살렸으나, ‘잔잔한 물 가’는 영어성경(RV, AS)의 ‘still waters’를 번역하면서 원문의 의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제 1행의 동사(yarbiṣēnî)를 ‘눕게 하다’로 제시한 『촬요』 번역은 이후의 번역에서 수용되며, 제 2행의 ‘잇스시며’는 ‘인도하다’라는 한문으로 수정된다(한문성경들은 모두 리으로 제시한다).

23:3

촬요 내 령혼을 회복히시고

즈기 일흠을 위하샤 나를 올흔 길노 인도히시도다

구역 나의 령혼을 회복히시고

즈기 일흠을 위하샤 공의의 길노 인도히시도다

개역 내 령혼을 소생식히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야 의의 길노 인도하시는도다

개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 1행의 목적어인 ‘내 령혼’(촬요)은 매우 독특한 번역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문성경들은 ‘我’(대표본), ‘我靈’(브리지만), ‘我心’(웨레쉐브스키)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사(yāšōbēb)는 한문성경에서 이 단어는 ‘蘇’(대표본), ‘復蘇’(브리지만), ‘蘇醒’(웨레쉐브스키=화합본)으로 번역되고 있으므로, 『촬요』와 『구역』의 ‘회복하다’는 독자적인 번역이지만(RV, restore), 『개역』의 ‘소생시키다’는 한문성경을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행의 명사구(maḡalê-ṣedeq)는 우리말 ‘올흔 길’(촬요)에서 ‘공의의 길’(구역)과 ‘의의 길’(개역)로 추상화 되며 수정된다. 『구역』과 『개역』은 한문성경(義路[브리지만, 웨레쉐브스키, 화합본]; 坦道[대표본] 참조)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역』의 ‘공의의 길’은 『개역』의 ‘의의 길’보다 더 구체적이다. 제 2행의 ‘인도하다’(촬요, 구역, 개역)는 웨레쉐브스키의引導와

일치한다.

23:4

촬요 내가 죽음의 음곡으로 hinghil지라도
악흔 거슬 두려워아니힐 거스
쥬씩셔 날노 흠씩 헛심이어
쥬의 막닥이와 집hing이가 나를 안위h읍느이다
구역 쏘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흔 골짜기로 든닐지라도
해 bat음을 두려워h지아니흠은
쥬 썩셔 나와 흠씩 계심이라
쥬의 막닥이와 쥬의 집hing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개역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단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닐 것은
쥬씩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쥬의 집행이와 막닥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개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 1행의 명사구(*gē' ṣalmāwet*) ‘죽음의 음곡’(촬요)은 한문성경을 참고할 수 있다(死蔭之谷[브리지만], 死蔭之幽谷[쉐레셰브스키=화합본]; 陰翳[대표본]). 『구역』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후 『개역』에서 수용된다.

제 3행에서 목자가 양을 지키는 두 도구(*šibṭōkā ūmiš'antekā*)는 『촬요』와 『구역』에서 원문의 순서를 따라 ‘쥬의 막닥이와 집hing이’로 바로 제시하는 데, 『개역』에서 순서가 도치되어 ‘집행이와 막닥이’로 잘못 변하고 있다(=개역개정). 인칭대명사 소유격 ‘쥬의’는 원문에서 두 번 나오므로 『구역』에서 두 번 다 반영하지만, 한 번만 반영하는 『촬요』가 번역적으로는 더 낫다고 볼 수 있다(이중기능). 『촬요』의 ‘안위하다’는 이후의 번역에서 모두 수용된다(‘安慰’ [쉐레셰브스키=화합본]).

23:5

촬요 쥬씩셔 내 원슈 압헤 날을 위h샤 상을 베프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섯스매 나의 잔이 넘치읍느이다
구역 쥬씩셔 나를 위h샤 내 원슈 압헤 상을 베프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느이다
개역 쥬씩셔 내 원슈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프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으셨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개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절의 번역은 우리말 세 번역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촬요』의 번역이 기본적으로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 제 1행에서 『촬요』의 ‘원수 앞에’(=구역)는 『개역』에서 ‘目前’이라는 한문으로 수정된다. 원문(neḡed šōrārāy)에는 ‘눈’이 없으므로, 『개역』은 한문성경을 참조했을 수 있다(‘面前’ [화합본]). ‘상’이란 우리말 번역은 賞과 床의 두 가지 뜻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원어(šulḥān)의 뜻을 따라 ‘잔치상’으로 번역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筵席 [쉐레쉐브스키=화합본]).

제 2행에서 『촬요』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스매’(=개역)는 『구역』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로 수정된다. 이 구는 원어(diššantā baššemen)에서 원래 ‘바르다’나 ‘붓다’는 뜻이 아니고, ‘새롭게 하다’(to refresh)는 뜻이다. 즉,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손님에게 기름을 부어줌으로써 기분을 새롭게 하였다(잠 15:30). 따라서 우리의 번역들은 전통적인 번역을 따라 ‘기름을 붓다’(to anoint)로 이해하였다. 이 번역을 유지한다고 할 때 우리 문화에서는 ‘기름을 부어주는 행동’이 없으므로, 『촬요』의 번역이 『구역』보다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3:6

촬요 내 평생에 덩녕이 은총과 즈비흠이 나를 쓰르겻슴이어
 내가 여호와의 던에 거햐야 영원히 밋즈리로다
 구역 진실노 선흠과 인즈하심이 나의 사닌 날스지 나를 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던에 영원토록 거햐리로다
 개역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덩녕 나를 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햐리로다
 개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햐리로다

이 절을 시작하는 강조의 불변사(ʔak)는 ‘덩녕이’(촬요=개역)와 ‘진실노’(구역)로 번역된다. 제 1행에서 한 쌍의 추상명사(tōb wāḡesed)는 ‘은총과 즈비흠’(촬요), ‘선흠과 인즈하심’(구역), ‘선하심과 인자하심’(개역)으로 변화를 거듭한다. 한문성경에서 이 두 단어는 恩寵福祉(대표본), 恩寵與矜恤(브리지만), 恩寵慈惠(쉐레쉐브스키), 恩惠慈愛(화합본)로 번역되고 있다. 『촬요』의 ‘은총’은 한문성경을 참고했을 수 있으며, 『구역』은 ASV(goodness=KJV)를

참고했을 것이다. 이 시편의 마지막 구(*lā'ōreḵ yāmîm*)를 『촬요』에서 ‘영원히
밋츨리로다’로 번역한 것은 이 전치사구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지만, 만약 전
치사 *le*를 살려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피터스가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씨름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⁴¹⁾

4.2. 시편 110편에 대한 번역 평가

110:1

촬요 여호와씨서 내 주의 널으샤되
내가 네 원슈로 네 발등상을 삼을 쟈 쉰지
내 우편에 안자 잇스라 하셧도다
구역 여호와씨서 내 주의 널너 꼴으샤되
내가 네 원슈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올흔 편에 안즈라 하셧도다
개역 여호와씨서 내 주의게 말삼하시기를
내가 네 원슈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안즈라 하셧도다
개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셧도다

이 절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상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며, 핵심 단
어들은 공유된다(‘내 주’, ‘원슈’, ‘발등상’). 다만 ‘우편’(촬요)이 ‘올흔 편’(구
역)으로 변하지만, 다시 ‘우편’(개역)으로 돌아간다. 동사에서 ‘안자 잇스라’
(촬요)는 ‘안즈라’(구역, 개역)로 변화한다. 원문의 단어(*šēb*)는 ‘앉으라’로 번
역하는 것이 정상이지만(*sit*[RV, ASV]; 坐我右[대표본]; 坐於我右[브리지만,
쉐레체브스키]), ‘앉아 있어라’는 순간적인 동작보다 지속적인 상태를 묘사한
다는 점에 있어서 『촬요』의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려낸 것으로 보인
다.

이 절에서 『촬요』의 ‘발등상’은 원어(*hādōm ləraḡleʿkā*)를 우리말 ‘발’과
한문 ‘등상’을 결합한 번역을 만들어 내었다. 원래 ‘등상’(凳床)은 “발돋움이
나 결상으로 쓰는 나무로 만든 기구”나 “나무로 만든 세간의 하나. 발판이나
결상”(국립국어원사전)으로서 충분한 의미 전달을 하지만, 원문의 ‘발’까지
번역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한문성경은 ‘足下’(대표본), ‘足凳’(브리지만,

41) 마소라 사본은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로 읽는다.

쉐레쉐브스키)으로 제시되므로, 『촬요』의 번역은 독자적 번역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10:2

촬요 여호와께서 장춧 씨온으로 브터
 네 권력을 표하는 막닥이를 보내시리니
 네가 원슈 중에서 쥬장홀지어다
 구역 여호와께서 장춧 주의 권능을 씨온으로 브터 나타내시고 고아샤되
 네가 네 원슈 가운데서 다스리라 하시도다
 개역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슈 중에서 다샤리쇼셔
 개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슈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절에서 세 번역은 상당히 달라진다. 제 1행에서 『촬요』의 ‘네 권력을 표하는 막닥이’는 ‘권능’으로 추상화되고(구역), ‘권능의 홀’(개역)로 다시 수정된다. 히브리어 원문(*matteh-‘uzzakā*)은 직역하자면, ‘권능의 홀’로서 임금의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행사하는 지팡이를 뜻하므로, 『촬요』는 원문의 뜻을 잘 드러낸 반면에 『개역』은 형식적 일치를 따라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 1행의 동사(*yišlah*)는 ‘보내시리니’(촬요), ‘나타내시고’(구역), ‘내어 보내시리니’(개역)로 번역된다. 물론, 목적어를 보통명사인 ‘막닥이’(촬요)나 ‘홀’(개역)로 번역할 것인지, 혹은 추상명사인 ‘권능’(구역)으로 번역할 것인지에 따라 동사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내어 보내다’(개역)로 번역하는 것은 몹시 어색해 보인다. 『개역』이 굳이 ‘내어 보내다’로 번역한 것은 영어 성경의 ‘send forth’(RV, ASV)를 반영하려는 의식적 시도로 보인다.

제 2행의 동사(*rādēh*)는 명령형으로서 ‘쥬장홀지어다’(촬요), ‘다스리라’(구역), ‘다스리라’(개역)와 기원형의 ‘다스리소서’(개한[1952])로 변하고 있다. 이 동사는 일반적으로 ‘다스리다’는 뜻이므로, ‘주장하라’(촬요)는 매우 독특한 뉘앙스를 살려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10:3

촬요 내가 권세를 잡는 날에 네 빅성들이 제 몸을 즐겁게 드림이어
 거룩하고 아름다운 중에 새벽 티로 말미암아
 내가 네 년쇼홀 이슬을 잇는도다
 구역 권세를 잡으시는 날에 주의 빅성이 즐거움으로 제 몸을 드리니
 주의 장경들이 다 거룩한 옷을 넘어 새벽에 난 이슬보다 만토다

개역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의 청년이 주의 대하야 새벽이슬 갖도다
개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도다

이 절에서 번역들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먼저 이 절을 시작하는 시간을 알리는 부사구(*bəyôm hêlekā*)에 대하여 『촬요』의 ‘권세를 잡는 날에’는 1절의 ‘네 권력을 표하는 막달이’를 이어주면서 시온에 등극한 왕이 드디어 권력을 쟁취하였음을 말해주며, 문법적으로 ‘시작을 알리는 용법’(ingressive)을 잘 드러내어 준다. 이 『촬요』의 번역은 그 당대의 역본들을 비교해 볼 때, 탁월한 번역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문성경들은 秉鈞之日(대표본), 操權之日(브리지만), 行軍之日(쉐레쉐브스키)로 번역하며,⁴²⁾ 당시의 영어 성경들은 일반적으로 ‘in the day of thy power’로 번역하고 있다(KJV, RV, ASV). 『구역』은 『촬요』를 따라 ‘권세를 잡으시는 날에’로 의미 일치의 번역을 하지만, 『개역』은 문자적으로 ‘주의 권능의 날에’로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네가 권세를 잡는 날에’(촬요)는 탁월한 선택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⁴³⁾

마소라 사본에서 제 1행을 시작하는 구(*ʿamməkā nəḏābōt*)는 명사 문장으로서 ‘당신의 백성’과 ‘자원 예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신의 백성(혹은 군대)이 헌신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⁴⁴⁾ ‘네 빅성들이 제 몸을 즐겁게 드림이어’(촬요)와 ‘주의 빅성이 즐거움으로 제 몸을 드리니’(구역)는 원문의 뜻을 따라 좋은 우리말로 잘 번역하고 있다. 『개역』은 한문 어투를 따라 ‘주의 백성이 … 즐거이 헌신하니’로 번역한다. 여기에서 ‘즐겁다’는 표현은 그 당시 영어 성경(KJV, RV, ASV)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자적인 번역이거나 한문성경을 참조했을 수 있다(必以己樂[브리지만], 樂心[쉐레쉐브스키]; 甘心[화합본]).

이 절의 중앙에 나오며 세 번째 구를 형성하고 있는 원문(*bəhadrê-qōdeš*)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중에’(『촬요』), ‘거룩한 옷을 입고’(구역), ‘거룩한 옷을 입고’(개역)로 번역되었다. 이 구는 당대의 영어성경에서 ‘in the beauties of holiness’(KJV, RV), ‘in holy array’(ASV), 한문성경에서는 必衣聖服(대표본),

42) 후대 한문성경에서는 掌權의日(화합본)로 나온다.

43) 그렇지만 필자는 원문의 구(*bəyôm hêlekā*)를 ‘임금님이 태어나시던 날에’로 번역하였다. 김정우, 『시편주석 3』(서울: 총신대출판부, 2010), 356.

44) 70인역은 ‘주께 권세가 있다’(μετὰ σοῦ ἡ ἀρχὴ)로 읽으므로(=חַבְדָּךְ בְּיָמֶיךָ BHS 비평주), 자음 본문을 수정하지 않고 뒤따르는 구와 함께 ‘임금님이 태어나시던 날에 당신은(이미) 권세를 얻었다’로 이해할 수 있다.

輸於聖之美者(브리지만), 飾以聖裝(쉐레쉐브스키), 要以聖潔的妝飾爲衣(화합본)로 번역된다. 따라서 『촬요』는 ‘거룩함’(qōdeš)과 ‘아름다움’(hādār)을 다 살리는 직역을 선택하였으며(KJV, RV, 브리지만), 『구역』은 원어(hādār)가 ‘입다’를 뜻하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었다’로 번역하였다.⁴⁵⁾ 즉, 이 구에 있어서 『촬요』는 직역을 하였으며, 『구역』은 뜻을 잘 살렸다.

또한 이 구(bəḥadrê-qōdeš)는 마소라 사본에서는 제 1행으로 연결되어 있지만(ASV), 독법에 따라 제 2행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RV). 우리말 번역에서 『촬요』와 『구역』은 제 2행으로, 『개역』은 제 1행으로 연결하고 있다. 현대의 번역들에서 이 구는 대부분 제 2행으로 연결되고 있으므로(NIV, NIB, NET, JPS, NAB, NIB 등), 『촬요』의 선택은 탁월했다고 볼 수 있다.

원문에서 네 번째 구를 형성하고 있는 원어(mēreḥem mišḥār)는 우리말 번역에서 ‘새벽 티로 말미암아’로 직역되기도 하며(촬요, the womb of the morning [KJV, RV, ASV]), ‘새벽’으로 의역되면서 뒤따라 나오는 ‘이슬’과 합하여 ‘새벽에 난 이슬’(구역), ‘새벽이슬’(개역)로 번역되었다. 한문 성경들은 대부분 ‘태’는 생략하고 ‘새벽’으로 번역하며, 뒤따라오는 ‘이슬’과 연결하고 있으며(朝露[대표본], 黎明之露[쉐레쉐브스키], 清晨的甘露[화합본]),⁴⁶⁾ 오직 브리지만만이 태와 이슬을 다 표현하고 있다(由味爽之胎爾獲爾幼之露兮). 따라서 『촬요』의 번역은 원문과 그 구조를 매우 충실히 따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절의 마지막 구(ləḳā ṭal yaldūteʾlḳā)는 마소라 사본에서 제 3행에 나오며, ‘당신에게 이슬인 당신의 젊은이들이 있다’로 직역할 수 있을 것이다.⁴⁷⁾ 이 구는 ‘내가 네 년쇼(年少)홀 이슬을 잇는도다’(촬요), ‘주의 장정들이 (새벽에 난) 이슬보다 만토다’(구역), ‘주의 청년이 주의 대하야 새벽이슬 갖도다’(개역)로 번역된다.⁴⁸⁾ 여기에서 『촬요』의 번역은 원문의 구문을 『구역』이나 『개역』보다 더 정확하게 읽었지만, ‘내가 너를 젊게 할 이슬이 있게 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번역하였으므로 오역에 가까운 번역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45) ‘거룩한 옷을 입고’는 ‘거룩한 옷으로 장식하고’로 번역될 수도 있다(출 28:2; 시 29:2; 96:9; 쉐레쉐브스키, 화합본 참조). 이 구는 몇몇 고대 히브리어 필사본, 심마쿠스, 제롬에서는 ‘거룩한 산에서’로 읽혀지기도 하였다(RSV, NET; 시 87:1; 숙 8:3 참조).

46) 오직 브리지만-컬벳슨 역만이 ‘이슬’과 분리하며, 味爽之胎[매상: ‘날이 새려고 막 먼동이 틀 무렵’]로 번역한다.

47) 이 구는 70인역과 페쉬타에서 ‘이슬’이 생략되고, ‘내가 너를 낳았다’로 번역되므로, 마소라 사본의 자음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나는 너를 이슬처럼 낳았다’(אניך ילדתי)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48) 『개역한글』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는 그 어떤 현대 번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번역이다.

이다. 물론 피터스는 그 당시 영어 번역들의 ‘thou hast the dew of thy youth’(KJV, RV)를 참조하며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고심하였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 난해한 연계형 구문의 의미를 상상하여 번역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구역』은 당대의 한문성경들의 번역들을 따라 ‘이슬보다 많다’(爾之冠者多於朝露兮[대표본], 爾之壯丁多於黎明之露[브리지만]; 참조 你的民多如清晨的甘露[화합본])라는 비교급으로 해석한 것 같다. 그러나 현대의 영어 및 유럽어 번역에는 그 어디에도 ‘이슬보다 많다’는 비교급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촬요』의 번역이 비록 오역이지만, 『구역』보다 원문과 더 깊이 씨름하였고, 『구역』은 한문 성경을 참조하여 번역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110:4

촬요 여호와와써서 일즉 밍세하시고 뉘웃치지아니하실 거슨 곶아샤딕
네가 말기새딕의 반렬을 조차 영원토록 제스장이 되노도다
구역 여호와와써서 밍세하신 거슬 뉘웃치지아니하시리니 곶아샤딕
네가 세세에 제스장이 되어 뿔기세딕의 반차를 좃치리라 하셨도다
개역 여호와와는 맹서하고 변치아니 하시리라 날아시기를
너는 뿔기세딕의 반차를 좃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개한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뿔기세딕의 반차를 좃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절에서는 먼저 문체의 변화가 눈에 띈다. 『촬요』와 『구역』에서는 ‘곶아샤딕’이 본문과 동일한 크기로 나오지만 『개역』에서는 ‘날아시기를’로 작아지며 원문에는 없지만 첨가된 단어임을 밝혀준다. 옛 번역에서 직접화법은 인용문의 표시가 없었으며,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절에 대한 『촬요』의 번역은 ‘밍세하다’, ‘뉘웃치다’, ‘제스장’, ‘영원한’에서 거의 가감 없이 『구역』에 반영되며,⁴⁹⁾ ‘말기새딕의 반렬을 조차’는 ‘뿔기세딕의 반차를 좃치리라’로 가볍게 수정된다. 『촬요』에서 ‘말기새딕’으로 번역한 것은 원어(malkî-şedeq)를 그대로 음역한 것으로서 그 당시 영어번역들은 Melchizedek(KJV, RV, ASV; 창 14:18)으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촬요』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그대로 음역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역』은 영어 번역을 따라 뿔기세딕으로 표기하였을 것이다. 『촬요』의 ‘반렬’(班列)은 『구역』의 ‘반차’(班次)보다 더 쉬운 우리말로 보인다. 이 단어는 한문성경

49) 『구역』에서 ‘세세에’로 번역한 것은 원문(šōlām)의 뜻에 어울리지만 불필요한 수정으로 보인다.

에서 班聯(대표본), 班(브리지만), 法(쉐레쉐브스키), 等次(화합본)로 번역되므로 『촬요』의 ‘반렬’은 독자적인 번역으로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한문성경은 ‘祭司’로 번역하는데 『촬요』는 ‘제사장’으로 번역하여 독자적인 용어를 만들었다.

110:5

촬요 주피서 네 우편에 계서서 노하시는 날에
 님금들을 치시리로다

구역 주피서 너를 도으샤 그 노하시는 날에
 반드시 열왕을 치시리로다

개역 주의 우편에 계신 주피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것이라

개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제 1행에서 『촬요』의 ‘네 우편에 계서서’는 『구역』에서 그 뜻을 따라 ‘너를 도으샤’로 잘 번역되었는데 『개역』에서 다시 ‘주의 우편에 계신’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또한 『개역』은 ‘주의 우편에 계신 주피서’로 번역함으로써 첫 ‘주’와 둘째 ‘주’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호하게 만들었다. 물론 『개역』은 이 시편의 주인공이 ‘메시아 왕’이라는 점을 신학적으로 고려하여 존대법을 쓴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제 2행에서 『촬요』의 토박이말 ‘님금들’은 『구역』과 『개역』에서 한자어 ‘열왕’으로 수정되었다(列王: 대표본, 브리지만, 쉘레쉐브스키, 화합본). 또한 『구역』은 ‘반드시’를 추가하는데, 이것은 원문에 근거가 없는 자의적 번역으로서 한문성경을 따라 덧붙여진 번역으로 보인다(必擊列王[대표본], 必打傷列王[화합본]; 曾擊列王[브리지만], 擊傷列王[쉐레쉐브스키] 참조; 영어성경에도 나오지 않는다). 『촬요』의 ‘노하시는 날’은 원문에 나오는 ‘그의’를 생략한 번역이며, 『구역』과 『개역』에서는 이 접미사 대명사를 살려내고 있다. 그러나 『구역』에서 ‘그’는 ‘주님’을 가리키지만, 『개역』에서는 이 시편의 주인공인 ‘임금’을 가리키도록 어순이 배열되어 의미를 좀더 명료하게 하고 있다.

제 2행의 동사(māḥas)는 기본적으로 ‘부수다, 깨뜨리다, 무찌르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HALOT, to smash; 샷 5:26; 함 3:13; 시 18:39[한 38절]; 68:22[한 21절]) 『촬요』와 『구역』의 ‘치다’가 『개역』의 ‘파하다’라는 한문 어투보다 우리 입말에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必擊[대표본], 必打傷[쉐레쉐브스키=화합본]).

110:6

찰요 유가 열방 중에 국문을 베프시매 죽음들노 그득하게 흐시고
만흔 나라의 머리를 치시리로다
구역 그가 만국 가운데서 형벌을 베프샤 죽음이 그득하게 흐시고
여러 나라에 머리 된자를 치시리로다 [good]
개역 열방 중에 판단하야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개한 열방 중에 판단하야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이 절의 번역에서 우리말 번역자들은 주어의 문제로 고심하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원문에서 주어는 ‘그’로서 ‘주님’(the Lord)이 될 수 있고, ‘메시아 왕’(the lord)도 될 수 있다. 『찰요』는 ‘쥬’로서 하나님을, 『구역』은 ‘그’로서 ‘왕’을, 『개역』은 주어를 생략하는 기지를 발휘하였으나 앞 절에서 동작의 주체를 ‘왕’으로 보았으므로 『구역』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1행의 첫 동사(yādîn)는 ‘국문을 베프시매’(찰요), ‘형벌을 베프샤’(구역), ‘판단하야’(개역)로 번역한다. 아마 『찰요』는 『브리지만』의 施鞠을, 『구역』은 『대표본』의 罰이나 『쉐레쉐브스키』의 行刑을 참조했다고 볼 수 있다(刑罰[화합본] 참조). 『개역』의 ‘판단하야’는 이 단어의 일차적인 의미(to judge)를 직역한 것으로 보이며, 문맥의 낱앙스를 그 이전 번역보다 잘 살려내지 못했다. 원문에서 이 동사는 전치사 be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현재의 문맥에서는 ‘벌하다’는 뜻으로 번역되어야 한다(HALOT, ‘to execute judgement’).

제 1행에서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원어(gôyîm)는 한문성경들(列邦 [브리지만, 쉐레쉐브스키=화합본]; 諸異邦人[대표본] 참조)을 따라 ‘열방’(찰요=개역)과 ‘만국’(구역)으로 각각 번역된다. 제 2행의 목적어가 되는 원어(rōš)는 기본적으로 ‘머리’(찰요=개역)이지만, 현재의 문맥에서 ‘지도자, 통치자’를 가리키므로, ‘머리 된자’(구역)가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말 번역이 된다(元兇 [대표본], 首領[브리지만], 敵人之首[쉐레쉐브스키], 仇敵的頭[화합본]).

원문에서 제 2행의 마지막 구(‘al-ʿereṣ rabbāh)는 부사구로서 ‘넓은 지역에서’라는 뜻이지만⁵⁰⁾ 우리말 성경들은 ‘머리’와 연계된 구문으로 보고, ‘만흔 나라의 머리’(찰요), ‘여러 나라에 머리 된자’(구역), ‘여러 나라의 머리’(개역)로 번역하고 있다. 이 번역은 ‘in many countries’(RV, ASV), ‘over many countries’(KJV)로 번역한 당시의 영어본과도 상충되며, 한문성경에서는 오

50) ‘over the wide earth’(ESV), ‘over a wide land’(JPS), ‘across the wide earth’(NAB), ‘over a broad country’(NAS), ‘over the vast battlefield’(NET) 등.

직 브리지만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多國之首領兮). 그러므로, 이 구의 번역에 있어서 우리말 성경들은 모두 원문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110:7

찰요 쥬가 길의 시내를 마실거시니
 그럼으로 머리를 드시리로다
 구역 쥬가 장춧 길겻 시내에서 물을 마시고
 괴운을 가다듬으시리로다
 개역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개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절의 주어에서 『찰요』는 앞 절과 동일하게 ‘쥬’를 제시하나, 『구역』은 앞 절의 ‘그’에서 ‘쥬’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주어를 ‘하나님’으로 잘못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개역』은 주어를 생략함으로써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원문에서 주인공은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새로 등극한 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말 번역은 모두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번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제 2행에서 ‘머리를 들다’(yārîm rō’s)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전쟁의 맥락에서 ‘승리를 거두다’는 뜻으로 사용된다(시 3:3; 27:6). 그러나 우리말 성경은 모두 이 히브리적 관용구(hebraism)를 직역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구역』은 ‘괴운을 가다듬으시리로다’로 의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 1행에서 ‘길겻 시내에서 물을 마시고’의 결과로 일어난 현상으로 해석한 것이다. 『찰요』도 제 1행과 2행 사이에 ‘그럼으로’를 첨가하므로 제 2행을 결과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물을 마심으로써 새 힘을 얻은 것’은 제 1행에 내포된 의미이며, 제 2행은 전투가 승리로 끝나서 새 왕의 왕권이 확립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5. 나가는 말

짧은 두 편의 시를 분석한 것에 근거하여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성숙한 학문적 태도로 볼 수 없겠지만, 이 기초 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잠정적으로 정리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저본이나 대본의 문제에 있어서 피터스가 히브리어 원문을 어떤 형태로든 보며 써튼한 흔적도 여러 곳에 나타난다. 예로서, ‘영원히 밋츨리로다’(לֶ־ׁרֶקְ יָאִמִּים 23:6); ‘발등상’(110:1, 직역), ‘거룩하고 아름다운 중에’ 구의 행 연결과 ‘새벽 티로 말미암아’라는 번역(110:3), ‘네 년쇼홀 이슬’(110:3; 비록 오역이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기새딕’(110:4)이라는 음역은 원문에서 직접 번역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원문의 이해에 있어서 『촬요』는 여러 곳에서 원문의 의미를 상당히 예리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였다:⁵¹⁾ 우리는 ‘목쟈가 되섯스니’(23:1), ‘막다리와 집힝이’(23:4), ‘내 우편에 안자 잇스라’(110:1), ‘네 권력을 표호는 막다익’(110:2), ‘쥬장홀지어다’(110:3), ‘권세를 잡는 날에’(110:3), ‘쥬찌셔 네 우편에 게셔셔’(110:5) 등의 번역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촬요』에도 어색하거나 원문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네 년쇼홀 이슬’(110:3), ‘쥬가 길의 시내를 마실거시니 그럼으로’(110:7)를 지적할 수 있다.⁵²⁾

『촬요』는 쉬운 우리말 표현을 골라내는 데 애를 쓴 것은 분명해 보인다:⁵³⁾

- 51) 『촬요』의 첫 35편의 시들(1-50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죽정이’(1:4; 겨[구역, 개역]), ‘나를 호외히는 방패’(2:3[구역; 나의 방패[개역]), ‘의에 합호는 제스’(4:5; 의의 제사[구역, 개역]), ‘내 마음에 베프신 깃뻑’(4:7; 내 마음에 두신 기쁨[구역, 개역]), ‘쥬의 두터운 은혜를 넘고’(5:7; 만흔 인즈호심을 넘음으로[구역].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개역]), ‘교만한 티도’(10:4; 교만한 모양[구역], 교만한 얼굴[개역]), ‘내게 등지게 호섯스니’(18:40; 도라서셔 도망게 호신 거슨[구역],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개역]), ‘눈을 쏘아 나를 보며’(22:17; 무례히보는도다[구역], 주목하여 보고[개역]), ‘허물을 허물노 보시지 아니호심을 엮으며’(32:2; 죄를 주시지 아니호시고[구역], 정죄를 당치 않은 자[개역]),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37:21; 공홀히 녀이고 시제호도다[구역],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개역]), ‘제스로 나와 흠피 언약을 미즌 이’(50:5;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구역, 개역]), ‘산에 있는 일만 회싱’(50:10; 일천 산의 회생들[구역], 천산의 생축[개역]), ‘슈소의 고기 … 슈염소의 피’(50:13; 수소의 고기 … 염소의 피[구역, 개역]), 또한 19:3에서 ‘연설, 말, 소리’로 번역한 것은 후대의 번역보다 더 정확해 보인다(방언, 말슴, 소리[구역, 언어, 들리는 소리[개역]).
- 52) 『촬요』의 첫 35편의 시들(1-50편)에서 어색한 번역: ‘눈이 늙습노이다’(6:7), ‘츨성을 기틀지어다’(37:3; 츨성을 좃칠지어다[구역],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개역]). 대명사 표기에서 원문에 천착한 경우: ‘그들의 엮어 된 것’, ‘그들의 줄’(2:3). 특이한 번역: ‘풍류호리로다’(27:6; 찬양호리로다[구역], 찬송하리로다[개역]).
- 53) 『촬요』에 나오는 첫 35편(1-50편)의 시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악호ن 차의 췌임’(1:1; 악호ن 차의 의론[구역], 악인의 꺾[개역]), ‘츨츨이 싱각호는 자’(1:2; 묵상호는도다[구역], 묵상하는 자[개역]), ‘열미를 밧고’(1:3; 과실을 맺으며[개역]), ‘울호ن 차의 길’(1:6 [구역]; 의인[개역]), ‘헛되이 싱각호는노’(2:1; 헛된 일을 경영호는노[구역], 허사를 경영하는고[개역]; 相議[브리지만], 商議[화합본], 會議[체레체브스키] 참조), ‘쇠 막다익’(2:9; 털장[구역], 철장[개역]), ‘근심을 맞났을 췌’(4:1; 도탄 중에서[구역], 곤란 중에[개역]), ‘사툼의 즈손들아’(4:2; 인즈들아[구역], 인생들아[개역]), ‘거긷 것’(4:2[구역], 궤홀[개역]), ‘경건호ن 차를 췌신겨술’(4:3[구역], 택하신 것을[개역]), ‘도호ن 것’(4:6; 선[구역], 신[개역]), ‘도리키다’(7:12; 회기하다[구역]), ‘뭇날스니’(6:2[구역]; 수척하였으니[개역]), ‘거긷 것’(7:12; 궤홀[구역]).

‘회복하다’(23:3; 소생식히다 [개역참조]),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23:5; 붓다 [구역] 참조), ‘제 몸을 즐겁게 드림이어’(110:3), ‘눕웃치지아니하다’(110:4), ‘반렬’(110:4; 반차[구역] 참조), ‘님금들’(110:5, 렬왕[구역] 참조), ‘만흔 나라’(110:6, 렬방[개역] 참조). 특히 『촬요』는 ‘자비함’(23:6)처럼 추상명사를 한문 투에서 우리말 어투로 잘 바꾸고 있다.⁵⁴⁾

『촬요』에도 한문성경 번역과 일치하는 것들로서 ‘방초 동산’(대표본, 23:2) ‘죽음의 음곡’(브리지만, 23:4), ‘은총’(대표본, 브리지만, 23:6), ‘국문을 베프 시때’(브리지만, 110:6) 등이 나온다. 이 점에서 『촬요』는 『대표본』과 『브리지만』을 참조한 것 같다. 그렇지만 『촬요』의 한문성경 의존도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구역』은 『촬요』의 시편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여 번역한 곳이 여러 곳에 나타나며, 가끔 어순을 도치하여 조그만 수정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다. 또한 『구역』은 『촬요』와 같이 『개역』보다 한글 어투를 더 많이 사용하며, 때로는 『촬요』를 떠나 독자적으로 더 좋은 우리말을 골라내고 있다: ‘푸른 풀밭’(23:2), ‘잔잔한 물 가’(23:2), ‘거룩한 옷을 넘어’(110:3), ‘너를 도으샤’(110:5), ‘머리 된자’(110:6).⁵⁵⁾ 물론 『구역』은 한문성경을 따르다가 원문에서 이탈한 경우도 보여주고 있다: 예로서, ‘이슬보다 만토다’(110:3). 전체적으로 볼 때, 『구역』의 『촬요』 의존도는 매우 높으며, 『촬요』를 떠날 때에는

‘도라보시다’(8:4; 권고하다[구역, 개역]), ‘쭈지르시고’(9:5[구역, 책하시고[개역]), ‘피호는 곳’(9:9; 높은 곳[구역], 산성[개역]), ‘씩툼인줄’(9:20; 씹툼인줄[구역], 인생 뿐인줄[개역]), ‘머물며’(15:1 류호며[구역], 유할 자[개역]), ‘흔들님’(15:5; 움직임[구역], 요동치[개역]), ‘덧들’(18:5; 덧치[구역], 울무[개역]), ‘어즈럽게 흐섯도다’(18:14; 꽤하게 흐섯도다[구역], 파하섯도다[개역]), ‘구리 활’(18:34[구역], 늦활[개역]),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20:7; 병거[구역, 개역]), ‘기와 조각’(22:15; 와륙[구역], 질그릇 조각[개역]), ‘짧엇슬 쎄’(25:7[구역], 소시[개역]), ‘숨는 곳’(32:7; 숨을 곳[구역], 은신처[개역]), ‘악을 짓기로만 향함이로다’(37:8; 죄건에만 싸지리라[구역],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개역]; 恐蹈罪愆[대표본] 참조), ‘업드러침을 당하지아니홀 거순’(37:24; 랑폐되지아니하리니[구역], 아주 업드러지지 아니함은[개역]), ‘싸흠 부르섯도다’(50:1; 천하에 조칙하였니[구역], 세상을 부르섯도다[개역]), ‘마득흔 만물’(50:12; 충만한 것[구역, 개역]), ‘마르침’(50:17; 교훈[구역, 개역]), ‘흔들어 말호고’(50:20; 휘방호며[구역], 공박하며[개역]).

54) 의로움과 온전함(7:7; 내 공의와 내 속에 있는 성실함 [구역], 내 의와 성실함[개역]), ‘악담 함과 속임과 포악함 … 잔해함과 죄악’(10:7; 저주함과 간사함과 포악함 … 잔해함과 간악함 [구역], 저주와 궤함과 포악 … 잔해 죄악[개역]). 울흠(18:20, 의[구역]), ‘인자하심’(구역; 인자[개역]), 붓그러움(22:6[구역]; 휘방거리[개역]), 평강함(37:11; 평강[구역], 화평[개역]), ‘공의로오심’(50:5; 공의[구역, 개역]).

55) 『구역』에도 탁월한 번역들이 나온다. 예로서 8:2에서 “쥬피셔 원슈를 인호야 어린 9히와 첫 먹는 차의 입으로써 힘있게 찬송호기를 덩흐섯스오니 이는 디덕과 원슈 갑는자로 호여 곱 줄줄게 하심이로다”로 번역함으로써, 어린 아이와 젓먹이들의 찬송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능력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8:5에서 ‘하느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섯다’(구역)는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지만, 이후 『개역』에서 ‘천사’로 되돌아간다.

영어성경을 따른 경우들이 자주 보인다: 예로서, ‘잔잔흔 물가’(23:2), ‘부으시니’(23:5, ‘anoints’; ASV), ‘안즈라’(110:1), ‘멜기세텍’(110:4) 등을 들 수 있다. 『구역』의 독자적인 번역으로서 ‘거룩흔 옷을 넘어’(110:3)는 원문의 뜻을 살린 좋은 번역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구역』에서 가장 눈에 띄이는 서지적 사항 가운데 하나는 시편 119편에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우리말 음가로 옮긴 것으로서 우리말 성경 번역 전통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꼽힐 수 있다.⁵⁶⁾ 불행히도 이 전통은 이후 『개역』의 과정에서 사라졌다.

『개역』은 어휘 선택과 구문 이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촬요』와 『구역』을 따르지만, 한문 어투를 주로 채택한다: ‘초장’(23:2), ‘소생’(23:3), ‘의의 길’(23:3), ‘원수의 목전’(23:5), ‘우편’(110:1), ‘권능의 흘’(110:2), ‘권능의 날’(110:3), ‘헌신하니’(110:3), ‘반차’(110:4), ‘렬왕’과 ‘렬방’(110:5, 6), ‘시체’(110:6). 『개역』이 한문투의 어휘를 취한 것은 한글이 공식적인 교육 언어로 배제되어가던 일제 강점기 시대의 문학적인 경향이나 기호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100년 전의 번역 환경은 원전의 비평본, 주석들, 원문사전들, 그리고 디지털 텍스트들을 모두 갖춘 오늘날의 환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였으며 거의 원시적인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원문과 아시아 언어들과 씨름하면서 100여 년을 애송할 수 있는 번역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은 그들의 노고와 헌신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역설적으로 잘 말해준다.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산을 갈고 닦으며 당대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내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지난 100년의 「시편」 유산에서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히브리어의 첫 번째 특징으로서, 시와 산문을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평행법을 아직까지도 우리의 번역본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시대의 새 번역에서는 시와 산문을 시각적으로뿐 아니라 의미론적으로 구별하는 편

56)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구역』이 대본으로 사용한 RV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KJV 초판과 ASV에는 나타나고 있다. KJV(1611)의 시편 119편에 나오는 알파벳 표기는 다음과 같다: ALEPH, BETH, GIMEL, DALETH, HE, VAV, ZAIN, CHETH, TETH, IOD, CAPH, LAMED, MEM, NUN, SAMECH, AIN, PE, TSADDI, KOPH, RESH, SCHIN, TAV. 알파벳의 영어 음역 표기는 구약성경에서 예레미야 애가나 잠언 31장 등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여기에만 나오고 있다. ASV(1901)의 시편 119편에 나오는 알파벳 표기는 KJV(1911)와 알렘에서 바브까지는 같으며 그 뒤에는 달라진다: ZAYIN, HHETH, TETH, YOD, KAPH, LAMEDH, MEM, NUN, SAMEKH, AYIN, PE, TSADDE, QOPH, RESH, SHIN, TAV. 『구역』의 음역은 다음과 같다: 알넵, 벳, 끼멜, 팔넛, 헤, 와우, 사인, 겿, 뎛, 옷, 감, 라멧, 멤, 눈, 사 맥, 아인, 베, 싸테, 곱, 레스, 신, दा우. 『구역』의 발음 표기는 그 당시 외국어를 우리말로 표기하던 관습과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원어 발음 표기의 정밀도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집적 배려가 꼭 있기를 소망한다.⁵⁷⁾

<주요어>(Keywords)

『시편 활요』, 『구역』, 『개역』, 『개역개정』, 『성경전서』(1911), 저본, 대본, 『대표본』, 『브리지만-컬벗슨역』, 『쉐레쉐브스키역』, 『화합본』, 번역의 특징, 번역의 질.

Alexander A. Pieters, *The Old Testament in Korean* (1911),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1911), *The Revised Version of Korean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1938), *Wenli Reference Bible* (Delegates Version, 1804), *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 *Schereschewsky's Version* (Easy Wenli Bible, 1902), KJV, RV, ASV, Translation Technique, Translation Quality.

(투고 일자: 2011. 3. 28; 심사 일자: 2011. 3. 28; 게재 확정 일자: 2011. 4. 1)

57) 『구역』과 『개역』이 대본으로 사용하였다는 RV에는 시편과 시편 외의 시들이 평행법을 따라 제시되었다.

<참고문헌>(References)

- 廣剛 (히로 다카시),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서울: 高麗大學校 大學院, 2005.
- 김정우, 『시편주석 3』, 서울: 총신대출판부, 2010.
- 김중은, “구약(舊約) 국역사(國譯史)에서 Alex.A.Pieters의 위치와 의의”, 『구약논단』 27 (2008), 159-182.
- 김중은, “최초의 구약국역 선구자 알렉산더 피터스(Alexander A. Pieters)”, 『교회와 신학』 13 (1981), 29-42.
- 김중은, “구약성서국역사” 『구약의 말씀과 현실: 심천(深川) 김중은 구약학공부문집』,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6.
- 김창락, “『성경전서』(1911)의 번역 검토”, 『Canon&Culture』 7 (2010), 39-74.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 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민영진, “「창세기」(1906/1911년)-서지사항, 편집특징, 번역특징, 주석 선택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7 (2010), 5-38.
- 민영진, “최근에 발견된 희귀본 성경 『구약촬요』(舊約撮要)”, 『기독교사상』 385 (1991), 157-166.
- 박용규, “알렉산더 피터스(Alexander Albert Pieters): 성경번역자, 찬송가 작사자, 복음전도자 1895-1911”, 『신학지남』 294 (2008), 106-155.
- 소기천, “1911년 『성경전서』의 한국 문화사적 가치에 관한 연구”, 『Canon&Culture』 7 (2010), 127-158.
- 왕대일, “『성경전서』(1911년)에 반영된 번역의 특징들”, 『Canon&Culture』 8 (2010), 5-36.
- 이달, “『성경전서』(1911)의 요한계시록 번역 특징에 대한 고찰”, 『Canon&Culture』 8 (2010), 71-98.
-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 『Canon&Culture』 7 (2010), 75-126.
- 이환진, “알렉산더 피터스의 『시편촬요』 번역 평가”,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김이곤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서울: 한들출판사, 2006, 413-454.
- 이환진, “『성경전서』의 번역 대본 고찰-시편(85:10-13)과 잠언(1:1-7)과 욥기(1:20-2:6)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7 (2010), 31-55.
- 『舊新約全書』, 神戸: 大英國北英國聖書公會, 1906(1864).
- 『新舊約聖書:文理串珠』, 上海: 中華民國聖經公會, 1920(1804).
- A. A.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The Korea Mission Field* 36:5 (1940), 78-80.
- Jacob Ben Hayim Ibn Adoniya, *Biblia Rabbinnica: A reprint of the 1525 Venice*

Edition, ed., introduction by Moshe Goshen-Gottstein, Jerusalem: Makor Pub., 1972.

Jacob ben Hayyim ben Isaac ibn Adonijah, *Introduction to the Rabbinic Bible*, Hebrew and English with explanatory notes by Christian D. Ginsburg, Prolegomenon by Norman H. Snaith, New York: Ktav, 1968.

Paul Joueon &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o, 2006.

<Abstract>

A Preliminary Review of the Early Korean Translations of the Book of Psalm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Source Text, Translation Technique and Quality, and their Reception History

Prof. Jung-Woo Kim
(Chongshin University)

As the Korean Church as a whole and the Korean Bible Society in particular are celebrating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1911) this year, it seems very appropriate to look back on the history of our Bible translations and evaluate the qualities of each version and revision published in the nascent periods of translation (from 1898 to 1938 in this paper). So far, Korean biblical scholars are divided into two major camps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 source text of *The Old Testament in Korean* (1911) and *The Revised Version of Korean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1938) - one argues that even though it is a highly complicated matter, early translators must have wrestled with the original text of the Hebrew Bible; however, the other argues that they used English versions such as *The Revised Version* (RV, Oxford and Cambridge University, 1887) of the KJV (1611) and the American Standard Version (ASV, 1911) together with a couple of Chinese versions such as the Wenli Reference Bible (Delegates Version, 1804), 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 (1864), Schereschewsky's Easy Wenli Bible (1902 [based on his translation in 1875]).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is age-long issue of the source text by analyzing two major texts in Psalms intensivel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ranslators' understanding of the Hebrew words, phrases and syntax. The present writer concludes that the first Korean translations of the Psalms by Alexander A. Pieters betrays some evidences which show that he has struggled with the Hebrew text in several passages and that he has also been in contact with the Chinese versions available in his time. With regard to the qualities of Korean translations in terms of their choice of the most suitable and common words and phrases in excellent ways, Pieters' translations could be highly evaluated even at this period. We can safely

conclude that his translations were basically followed by Underwood's translation of the Psalms (1906, 1911) even though we should acknowledge that Underwood endeavored and made his own efforts by referencing the Chinese versions and his own understanding of the received Hebrew text. We may count it as an irony of history that Pieters was appointed as one of the members responsible for the revision of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against or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Underwood of which we know little. At any rate, he as the reviser of Underwood's translation of Psalms, sometimes recovered his first translations (1898), while at other times he accepted Underwood's translations and eventually finished his job successfully (1938). As for the styles of writing, Pieters and Underwood preferred to use Korean terms and its literary style as much as possible during the early stages; however, in later works by Pieters and *The Revised Version of Korean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1938), many Korean terms were replaced with the Chinese ones, which may reflect the literary taste of the time. One final suggestion to improve the literary style of the present *New Revision of the Revised Version of Korean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1998) is that its style would be far better if the poetic texts are to be rearranged according to the basic design of the Hebrew poetic text, namely, in terms of parallelism.